

2016년 국가직 9급 해설 (2형)

제공 : 유두선 교수

1. ① 어말의 sh[ʃ]는 ‘시’로 적는다. 손전등
② 자음 앞의 sh[ʃ]는 ‘슈’로 적는다. 새우를 뜻하는 단어이다.
③ 프레젠테이션 - 광고의 계획서 따위를 이룸
④ 과학자 ‘뉴턴’

정답 ②

2. ① ‘느’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서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대조됨을 나타내는 예는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정답 ①

적중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 느 :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 만 :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 대로 :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 조차 :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1000제 영역별 1권 88P (문제유형, 보기 일치)

24. 다음 보조사의 기능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 ① 꿀은 까서 먹고 사과를 깎아서 먹는다. → 꿀과 사과를 대조하는 기능
② 오늘은 10번부터 20번까지 청소한다. → 범위의 끝을 나타내는 기능
③ 하루 종일 커피만 마셨더니 속이 쓰리다. →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기능
④ 시험을 본 뒤로 밤마다 눈물로 지냈다. → ‘날날이 모두’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

③ ‘만’은 ‘커피’에 한정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기능이 쓰인 예는 ‘열장의 로또 중에서 하나만 당첨돼도 좋겠다’에서 ‘하나만’의 경우이다.

3. 사씨와 유한림이 역경을 겪다가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은 사필귀정의 뜻과 일치한다.

- ① 교언영색 :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② 절치부심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만시지탄 :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④ 사필귀정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정답 ④

적중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1000제 영역별 1권 285P (문제 유형, 문제 정답)

166.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와 도덕의 존중이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게 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사유의 첫째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이 근시안적이라는 사실이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이해 관계만을 계산할 때 우리는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근시안적 시선을 벗고 바라볼 때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불행한 생애의 주인공이 된 경우보다는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말년을 비참하게 보낸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이 언제나 적중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혀 근거없는 허사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 [illegible]

4. 조별로 총 5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3만원 받은 사람과 2만원 받은 사람은 상대가 각각 2만원, 3만원 받아 차이가 났음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나 2만 5천원을 받은 사람은 공평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조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답의 판단 기준은 ‘공평’이 된다.

정답 ①

5. ‘그러나’, 이후에 로마를 먼저 보라고 하고 그 이유로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의 판단기준은 ‘반성’이 된다.

정답 ②

6. ‘그러나’이후의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시인은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언자,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뒤에 구체적 예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제목은 ‘시인의 사명’이 적당하다.

정답 ③

7. 유년 시절의 회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열무삼십단 -> 어머니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
- 해는 시든 지 오래 -> 시간의 흐름을 열무가 시든 모습으로 시각적 형상화
- 찬밥 ->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처지 ㉡
- 천천히 숙제를 해도 -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숙제를 천천히 함 ㉢
- 배춧잎 같이 밭소리 - 어머니의 지친 밭소리
- 금간 창틈 - 가난하고 어려운 삶 ㉣
-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강한 그리움(촉각)
- 윗목 - 차가운 기억(촉각)

정답 ③

적중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밭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밭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2016년 3월 7일자 카톡 시 강의 (작품정리)

8. 달관적이고 관조적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작품이다. ‘이슬’은 영롱하고 아름답지만 해가 뜨면 소멸하는 허무한 이미지이다.

- ① 눈물 -> 어머니의 희생

- ② 나뭇잎 -> 신선함
- ③ 꿈 -> 소멸하는 허무한 이미지
- ④ 구름 -> 자유로움의 상징

정답 ③

적중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 ④ 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2016년 2월 4차 약점체크 (본문 일치)

10. ‘시의 화자가 곧 시인’이라고 할 때, 다음의 (가)와 (나) 작품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9. ① 광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 유의어  
확정 : 잘못을 바로잡음
- ②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닷가에 있다는 상상의 나무 ☐ 반의어  
함지 :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
- ③ 중상 :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 유의어  
비방 :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함
- ④ 유사어  
갈등 :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함 ☐ 유의어  
알력 :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은 것

정답 ②

10. 답지의 핵심어를 파악한 후에 지문을 읽는 것이 좋다.

- ① 진행자의 세번째 말에 ‘평저 구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② 김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적이 없다.  
③ 김교수의 첫번째 대화에서 판옥선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④ 진행자의 네번째 대화에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묻고 있다.

정답 ②

11. ① ‘보다’ 비교를 뜻하는 격조사 ‘는’은 보조사이므로 모두 붙여 써야 함

- ② ‘같이’는 격조사이므로 붙여 씀  
③ ‘은커녕’은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④

#### 적중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1000제 영역별 1권 124P (문제유형, 보기 일치)

2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아이를 안아도보고
- ② 쌀 세말을 사서
- ③ 미연이도 **너 같이** 예쁘다.
- ④ 그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다.

12. ‘안갯음’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반포지효) 즉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말한다.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은 ‘양갯음’이다.

정답 ②

#### 적중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음 :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썰이 아니었다.  
- 불썰 :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1000제 영역별 242P (보기 적중)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 ① 참조기 새끼로 담근 젖 - 황새기젖
- ②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해미**
- ③ 짐승의 나이로 4살 - 나릅
- ④ 한 말하고 그리고 반 말이 더 있는 것 - 말가웃

13. ① 콧방울이 표준어로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말한다. ‘콧망울’은 비표준어

- ② 눈초리 : 귀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 눈꼬리
- ③ 콧밥 : 귀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 콧볼
- ④ 장판지 :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

정답 ①

14. 「경설」은 이규보의 수필로 흠과 티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지나치게 결벽하고 청명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바르게 처신하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처세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이

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선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적중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2016년 전국어 2권 417쪽 21번(2014 사회복지) -(지문일치)

15. ① ㉠의 앞문장과 뒷문장은 상반된 내용이므로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

② ㉡은 시치미를 댄다는 의미로 내용과 거리가 멀다. 단편적인 대책이란 말을 볼 때 임시방편을 뜻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

③ ㉢ ‘대기업들’이란 목적어와 호응하기 위해서 ‘경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은 중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삭제해야 한다.

정답 ③

적중

15. ㉠ ~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  
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  
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  
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  
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 -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 -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 ③ ㉢ -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 ④ ㉣ -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약점체크 3월 12차 (문제 유형 일치)

16. 다음은 교지에 신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어떤 사람은 철학 없이도 ㉠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고민이나 반성 없이도 잘 사는 것 같  
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다. 살아 가다  
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자신이 당연히  
계 여기던 것들에 대해 ㉡ 의심스러운 회의가  
들면, 삶의 원리를 외면해 온 사람들은 갈팡질  
팡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정해 준 원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① ㉠은 맞춤법에 맞도록 ‘얼마든지’로 고친다.

② ㉡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므로 ‘의심스러운’을 삭제한다.

③ ㉢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며’와 대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로 고친다.

④ ㉣은 좀더 자연스러워지도록 ‘권력의 시녀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며 이념적 환상의 피해자가 된다.’로 고친다.

- ① ‘교정이 넓다’는 서술절이니 서술어 역할을 함
- ② ‘비가 오기’는 명사절로 목적어 구실을 한다.
- ③ ‘아이들 놀다 간’은 관형절로 관형어 역할을 하니 주성분이 아니다.
- ④ ‘대화가 어디로 갈지’는 명사절로 목적어 구실을 한다.

정답 ③

17. ① 使噓(하여금사, 부추길주)  
② 干涉(간여할 간, 건널 섭)  
③ 缺陷(이지러질 결, 빠질 함)  
④ 剔抉(빼 바를 칩, 굽을 곁)

정답 ②

적중

17.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ㄊ - 使噤  
② ㄌ - 間涉  
③ ㄘ - 缺陷  
④ ㄞ - 剔抉

2016년 전국어 3권 212쪽 수록 단어

18. ‘몰두’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열중함’을 뜻하는 말인데 작가는 ‘沒頭’를 한 자어의 뜻 그대로 사용하여 진드기가 살로 파고들어 돌아 나올 줄 모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능청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자아내려 한다. 매력적 오답은 ①번인데 한자어 몰두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다른 한자는 없다.

정답 ④

19. 작중인물인 ‘나’가 시골자와 표독한 위인의 대화를 듣고 조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① 3인칭 전지적 시점 ③ 3인칭 관찰자 시점 ④ 1인칭 서술자와 3인칭 서술자가 교차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필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쨌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물 것이 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 (중략) ...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약점체크 3월 3차 16번, 8차 10번 작품적중

20. 8차 교과서에 ‘화법’에서 출제된 내용이다.

① 체중과 관련된 답변이니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했다는 말은 잘못이다.

② 비행기보다 빠르다는 것은 거짓이다.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니 질의 격률에 어긋난다.

③ 쓸데없는 형의 나이까지 말했으니 양의 격률에 위배된다.

④ 모호하게 말하며, 조리있게 말하지 못했으니 태도의 격률에 위배된다.

정답 ①

적중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 <보 기> —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 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① 대화(1):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② 대화(2):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③ 대화(3):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④ 대화(4):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2016년 국가직 9급 국어 - 총평

예견했던 대로 이번 국가직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었다. 응시생이 증가하였으므로 변별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 구성은 문법과 어휘 7문항, 한자와 한자성어 3문항, 독해와 화법 5문항, 시·소설·수필 5문항이다. 작년과 다른 점은 문학 문항이 많아졌다는 점이고 한자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화법문제가 2문항 나온 점도 유의해야겠다. 문법·어휘문제는 작년과 같은 문항수를 유지했으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다. 지방직이나 서울시도 이 추세로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풀지 말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방직은 독해 비중이 더 높으니 그 점에 유의해서 대비하길 바란다.